#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11년 10월호

통권 제 217호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 9월 교우소식

### 축 하

♣ 조영준군 · 남궁자양(장미화 권사 장녀)
24일(토) 오후6시 샤이닝스톤 2층 릴리홀

### 새 가 족

♣ 최원호 204구역
관악구 인헌동 196-3 204호 ☎ 010-5129-2938

♣ 황순덕 107구역
종로구 원서동 135-53 1층 ☎ 02)747-1608

♣ 김혜숙 108구역
종로구 누상동 ☎ 010-3400-6880

### 입 원

♣ 이정근 집사, 서울대병원 9419호

♣ 김진순 권사, 고관절수술후 청주요양병원 입원

♣ 홍세진 권사, 백병원 1010호

♣ 신현자 집사, 대림성모병원 1150호

### 기 타

♣ 교역자부임- 김승아 전도사(아동부 교육지도)
이승민 전도사(유치부 교육지도)

## 임직자수련회

지난 23일~24일에는 임직자들이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1박2일의 수련회를 하였다. 임직식에 앞서 지금까지 임직자 교육을 통하여 배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임직자로서의 각오를 적어보기도 하였다. 다음은 임직자들의 각오를 소개한다.

그동안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주위에 전달하는 삶을 살겠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이성적이지 않지만 포근한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남을 대하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들의 불안과 평안 없음을 이해하도록 힘쓰겠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미워하지 않고 용서의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 속에는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많이 남아있다. 주님께 그 미움과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기도로 간구하겠다. 지금 당장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따를 수 있는 기회와 신앙을 간구하겠다.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쓰임 받는 도구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는 자, 주님을 내 삶의 중심과 주인이 되길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도록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마음, 영적으로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 추수감사

을지자르갈 전도사

무더운 여름이 지나 어느 새 풍요로움의 계절인


110-2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27 ☎ 733-3395 FAX) 733-3398

가을과 함께 추수감사절이 우리 가까이 왔다. 추수감사절 하면 미국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생각나게 한다. 1620년 9월8 영국의 박해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의 지유를 찾아 새로운 땅을 기대하며 대서양을 횡단했다. 1620년 12월8일 새로운 땅에 도착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안고 기뻐했다. 하지만 토양이 다른지라 가지고 간 보리와 밀은 바로 말라죽었고, 겨울을 보내며 배고픔과 전염병으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인디언들은 농기구를 가져가고 밭을 망쳐놓기고 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다. 1621년 봄, 한 호이적인 인디언 부족이 옥수수와 농작물 재배법을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밭을 일구고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가을, 드디어 첫 수학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가장 좋은 열매와 곡식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다. “우리를 지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며 즐겁게 보냈다고 합니다. 영아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안동 교회 가족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영아부의 여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건강하게 길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1)

##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교사 이나영

얼마 전 안동교회 전 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도 청년부와 함께 버스를 타고 수련회 장소로 떠났습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예배에는 참여했지만 다른 프로그램 시간에는 ‘구약의 제사’라는 주제로 중고등부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적게 온 아이들 때문에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걱정도 되었습니다. 숫자의 적음이 장애물이 되어 수련회에 가기 전 준비했던 많은 프로그램들과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고 싶던 좋은 추억, 신앙심이 아이들에게 전해지지 않을까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로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를 본 후, 기획해 온 프로그램 중 첫 번째! 미니올림픽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두 팀으로 나눈 뒤 여러 가지 게임들을 진행했어요. 그 중에서도 그냥콜라와 홍초를 탄 콜라를 섞은 뒤 한 팀이 마시고 다른 팀은 누가 홍초를 탄 콜라를 마셨는지 맞추는 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 누가 어떤 콜라를 가져갔는지 알았기 때문에 홍초를 탄 콜라를 마시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아이와 그냥콜라면서 홍초인 척 연기하는 아이를 보니까 정말 웃겼어요. 미니올림픽을 마치고 시작한 조별 성경공부는 ‘성막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성막의 구조를 이해하고, 예수님과 연결 되어 있는 성막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밥을 먹은 뒤 천문대에 가서 비 때문에 관측은 못했지만 별자리와 우주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때쯤 후발대로 소담선생님과 아이들이 도착했는데, 못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들까지 와서 아이들이 많아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걱정하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뒤에는 간식을 먹은 뒤 '타임머신 attention' 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타임머신 attention’은 찬양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고 미니성막을 만들며 내일 있을 ‘타임머신 service’를 예습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이 끝났고 성경QT로 둘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사를 한 뒤에는 제사의 이해를 주제로 조별 성경공부를 하였습니다. 제사의 종류와 제사로 사용된 재료들이 뭔지 배우고 주요 구절도 암송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 주일예배를 본 후 동고동락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팀 대항으로 진행되었고, 여러 가지 게임 속에 성경공부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중간 중간 넣어서 재미+공부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물놀이 시간이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지라 물놀이를 했습니다. 점차 굵어지는 빗방울.. 결국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방으로 들어와서 영화를 보며 쉬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아이들과 선생님은 끝까지 노셨습니다. 대단하죠? 쉬다보니 비가 그치고, 저녁을 먹고 타임머신 service를 진행했습니다. 타임머신 service는 야외에 성막을 구현하여 코스별로 예배를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기획 의도는 안동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예배의 진정한 본질인 '하나님 만남'을 돕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간에 비가 와서 약간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진지하게 따라준 것 같아 매우 유익했던 시간 같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는 방에 모여 포크댄스를 추었어요. 처음에는 춤도 어렵고 쑥스러워서 쭈뼛쭈뼛했지만 몇 번 추니까 재밌어서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포크댄스로 흥이 났는지 이대로 자기는 아쉽다며 아이들이 둘러앉아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마피아,369,바니바니 등등 새벽까지 게임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아 전도사

저는 2011년 9월 11일부터 안동교회와 함께 하게 된 아동부 전도사 김승아입니다. 먼저 안동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동교회와 함께 한 시간이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한 주 한 주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의 따뜻함을 느껴가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고, 사람 좋은~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영주 옆에 있는 '안동'이란 도시를 아시죠? 그 곳은 저의 어릴 적 친구들과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가까운 곳이라 자주 갔었기에 저와는 뜻 깊은 인연이 있는 도시랍니다. 그렇게 '안동'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제가 처음 안동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친구들에게 얘기했을 때, 친구들은 하나 같이 경북 안동으로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었답니다. 그렇게 '안동'이란 도시와 인연이 있던 제가 안동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지금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놀랍고 즐거운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한 가족의 가장이 된 오빠 이렇게 4명입니다. 혈액형별 특징은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 가족은 A,B,AB,O형의 혈액형이 골고루 있어서 함께 지내다보면 주변에서 말하는 혈액형별 특징이 잘 나타나는 참 재미있는 가정이지요. 고향 영주에서 또 다른 고향, 저의 믿음의 고향은 신영주교회입니다. 그 곳에서 성장기를 거치면서 유아세례도 받고 입교도 받았으며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교회가 5분 거리이기에 집 주변에 딱히 놀이터가 없던 저에게 교회는 아주 좋은 놀이터가 되었죠. 어릴 때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며 놀다가 집사님들께 혼도 많이 나곤 했었답니다. 그렇게 집이 가깝다보니 교회에 더 자주 가게 되었고 신앙의 터전인 그 곳에서 믿음의 영양분을 더 잘 공급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가 친숙하다 보니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힘이 들 때도 교회에 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년 가까이 영주에서 살다가 2004년 2월, 아차산 기슭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 입학하게 되면서 영주토박이가 영주를 떠나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오빠를 보기 위해 서울에 가끔 놀러왔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은 여전히 저에겐 사람 많은, 크고 낯선 동네였어요. 처음으로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하철을 거꾸로 타서 기숙사 통금 시간에 늦기도 하고, 쏟아지는 숙제와 시험들로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학교주변의 아차산과 한강을 거닐면서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며, 또 친구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어색하고 낯간지럽게 느껴지던 서울말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이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동교회에 와서 함께 기쁨과 열심히 아동부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안동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안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에 힘쓰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매일 매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민 전도사

안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유치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된 이승민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안동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동교회에 와서 뿌리 깊은 믿음의 역사와 교회 성도들의 화합이 어우러져 차분한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이끄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저와 제 남동생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신앙의 본이 되어주셔서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은 저와 제 남동생의 신앙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느지막하게 가게 된 군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진로와 비전으로 고민했습니다. 청년부에서 좋은 교역자분들과 선배들을 만나 믿음의 열정을 쌓아 가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나, 정작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할지 몰라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날들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군대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했고 감사함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철학과를 다니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법을 배웠고, 현재 신학을 공부하는데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신학을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재미있게 공부하고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미래의 목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동교회 유치부는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저의 첫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사역하는 곳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합당한 곳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긴장하면서 첫 발을 내딘 유치부에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셨고, 유치부 아이들도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유치부에 오기 전에 설레는 마음이 컸는데 선생님들과유치부 아이들을 보니 부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적응해야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시간을 빨리 줄여서 힘껏 유치부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과 한 마음이 되어 유치부의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치부에 오면 따뜻함이 느껴지고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지루하고 따분한 곳이 아닌 오고 싶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동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유치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유치부 아이들이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안동교회로 이끌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안동교회 성도들께서 앞으로도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진으로 보는 교회소식

▶ 추석합동추모예배

▶ 안수집사,권사 임직식

#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다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던 제96회 총회가 회무 일정을 하루 앞당긴 지난 9월 22일 산적한 회무를 처리하고 미진안건은 총회 임원회에 일임한 후에 폐막됐다.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제96회 총회에서는 본교단 소속 교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한편 본교단의 장기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수립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총대를 파송하지 않은 서울노회를 제외한 전국 63개 노회 1천3백59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제96회 총회에는 교단의 법과 상식에 근거해 교단의 정체성인 '개혁교회로서의 통합 정신'을 강조하는 총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총회 임원회가 총회 각 분야의 장기발전을 연구하고 본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청원한 (가칭)장기발전연구위원회 조직안이 전격 통과돼 본교단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앞장설 전망이다. 또한 늘어나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주원로원의 매각 청원안도 허락돼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각 수순을 밟게 됐다.

제96회 총회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던 황형택 목사의 특별재심 청원건은 재론 과정을 거쳤지만 찬성 3백75표로 의결 정족수 3분의 2를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으며, 강원노회장 이홍열목사가 청원한 총회 특별재심 청원건은 찬성 9백43표를 얻어 특별재심이 허락됐다.

총회 규칙부 보고에서 상정된 추첨제를 포함한 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안은 금권선거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추첨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총대들의 참정권을 막는 제도로 기존의 선거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표결에 들어가 찬성 1백65표만 얻어 추첨제를 포함한 규칙부 안이 부결됐다.전국 11개 노회가 해체 탈퇴 행정보류 등 강한 의지를 담아 헌의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해서도 격론 끝에 교회연합사업위가 제안한 한기총 안에 남아 개혁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회연합사업위의 제안에 따르면 총회 임원회와 협력해 한기총 안에서 계속 개혁을 추진하며 개혁안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보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임시목사의 명칭 변경 등 시급히 개정해야 할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가 총회 기간에 헌법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보고에 들어갔지만 헌법 전체 개정안을 다루는데 부담을 느낀 총대들이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가 의결 정족수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현 개정안은 폐기되고 1년간 더 연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제96회 총회에서는 3명의 인사건에 대해 총대들의 박수로 인준했다. 총회 신학교육부에서 청원한 영남신학대학교 신임총장 권용근목사의 인준과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청원한 사무국장 정신천장로의 재인준, 그리고 총회문화법인에서 청원한 신임 사무국장 손은희목사의 인준 등 3건을 모두 처리했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총회장실에서 제96회기 1차 임원회를 열고 제96회 총회 석상에서 보고하지 못한 14개 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진안건을 처리했다.

## "스스로 갱신하고 개혁하는 일에 앞장"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느 한 교단이 잘하고 못한다는 평가를 받기 보다 한국교회 전체가 통틀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과 더불어 함께 연합해 스스로 갱신하고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제96회 총회 2일째 오후 회무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가진 총회장 박위근목사(염천교회 시무)는 "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교단과 연합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를 부탁했다.

언론사와 방송사 기자들의 열띤 취재 열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총회장 박위근목사와 부총회장에 선출된 손달익목사(서문교회), 오정호

장로(대광교회) 등 제96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전원이 참석, 제96회기를 이끌어갈 임원으로서의 소감과 함께 본교단과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먼저,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 총회장으로서의 소감을 밝힌 박위근 총회장은 "우리 교단 총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제한 후, "본인을 포함해 이 자리에 참석한 총회 임원들은 총회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면서 "앞으로 1년간 기도하면서 총회를 잘 섬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96회 총회주제에 역점을 두고 말을 이어간 박 총회장은 제96회 총회 주제를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정한 배경에 대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다"면서 "이러한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적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총회장은 이어 "총회 주제에 따른 실천은 이번 총회에서 허락받은 총회 장기발전연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장기발전연구위원회를 통해 총체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해서 개혁 방안과 발전 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타교단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한 뒤, "이러한 현안은 우리 교단만이 풀어가야할 숙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풀어가야할 과제"라면서 "교단장들과 함께 논의한다면 문제해결이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회장에 이어 인사한 목사부총회장 손달익목사는 "총회장을 잘 보필해 우리 교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교단의 갱신을 이뤄나가는 일에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우리 교단 총회가 이번 선거과정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했고 앞으로 큰 강물이 되어 한국교회 전체가 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로부총회장에 선출된 오정호장로는 "2008년에 장로부총회장 제도를 허락해주셨다"고 언급한 뒤, "장로들은 한국교회 안에서 감당해야할 일들이 많고 또 감당해야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총회장을 잘 보필해 목회현장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인사에 이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답변이 진행됐다. 기자들의 질의응답에는 한국교회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태와 한국찬송가공회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기총 사태 해결을 위한 질의에 대해 총회장 박위근목사는 "한기총 사태에 대해 이미 탈퇴 해체 행정보류 등의 헌의안이 상정돼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앞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기총이 더 이상 우려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면서 "우리 교단이 성숙되고 어른스러운 교단인만큼 그 위상에 걸맞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찬송가공회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우리가 만든 찬송가는 우리가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찬송가 문제로 한국교회가 분열돼서는 안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단장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마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총회창립1백주년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총회 창립1백주년기념대회가 일회 전시성 행사로 되지 않기 위해 기념대회를 취소하고 총회주일에 맞춰 총회창립1백주년기념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면서 "내실을 기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한기총 개혁에는 한목소리

본교단 제96회 총회를 앞두고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한 교단의 입장이 참여를 통한 개혁으로 가닥을 잡고 마무리됐다.

전국 11개 노회가 현재 교회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기총에서 본교단이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행정과 재정을 중단할 것 등을 요청하는 헌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는 3가지 방향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위원장:지용수)는 제96회 총회 4일째인 지난 9월 22일 본회의에서 교단의 입장을 첫째 연합과 개혁적인 입장에서 헌의한 11개 노회의 탈퇴와 행정부류 등 강한의지를 유념해서 본교단 총대 22명이 한기총을 계속해서 개혁

해 나갈 것, 둘째 특별비상 총회에서 마련된 개혁안인 대표회장의 단임제와 교단순번제 등이 정관대로 운영되도록 협력하고, 정관대로 한기총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재정과 행정보류를 할 수 있고, 셋째 개혁과 발전을 위해 총회 임원회와 교회연합사업위원회가 협력해서 계속노력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본회의에서는 총대들이 발언을 통해 한기총 관련해서 본교단의 처리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다면서 시대 정신을 읽어 총회가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 한기총 문제가 발생한데에는 본교단의 잘못도 있었다면서 먼저 교단이 회개하는 마음을 담은 성명서를 교단의 입장과 함께 발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 농어촌 부흥 돕는 '농어촌선교연구소'

"별 알아주지도 않는 산골에서 배 곯아가며 몸부림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계간지 '농촌과 목회'에 실린 한 농촌 목회자의 글이다. 이 짧은 문장에 농촌 교회의 현실과 목회 여정의 고단함이 묻어나온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장 마지막에 정해진 길을 숙명처럼 걸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목회자처럼 대다수의 농어촌 목회자들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목회하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살리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정서적인 풍요로움이 존재하는 농어촌을 사랑하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어촌 목회자와 교회의 노력에 힘을 보태는 단체가 있다. 2008년 4월 개소한 호남신학대학교 부설 농어촌선교연구소(이사장:안영로, 소장:강성열). '농어촌 교회의 자립방안을 돕고 성장동력 확보에 일조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개소 이후 그동안 농어촌 교회의 선교과제를 연구하고 조사해 목회자들에게 제공하고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구심점이 돼왔다.

이사장 안영로목사는 연구소 개소 당시 "인구감소와 고령화,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어촌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한국교회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한 농어촌 교회를 살리고 보살피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연구소 활동은 다양하고 현실적이며 광범위하다.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은 목회자들에게 선교 정보를 제공하며 의식의 전환을 돕는 세미나와 공개강연회를 1년에 2차례 정도 진행한다. 연구소는 세미나와 강연회를 통해 농어촌 사역의 중요성을 알려 결국 '정주 목회' 할 수 있는 의지를 키워주고 있다.

예비 목회자인 신학생들에게도 농어촌 목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농어촌 목회자들의 요청으로 호남신대 신대원 교과목으로 '농어촌 선교현장과 생명목회'(2학기 선택 3학점)를 개설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농어촌 교회에서 시무하기 원하는 학생은 교육 이수를 통해 비전을 새롭게 다지고 관련 사역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도시교회로 나갈 학생에게는 농어촌 목회 현실을 이해하고 조금 더 애정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연구소장 강성열교수(호남신대 구약학)는 "농어촌 목회현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역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면 목회 초년생들이 농어촌지역에 가기 꺼려하는 현상을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과목을 이수하고 최근 농어촌 목회현장에 나간 학생들이 유기농 친환경 농사, 노인복지, 다문화 선교 등 사역을 신명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소는 농수산물 직거래를 연결시켜 주고 있다. 다양한 농수산물을 시골장터처럼 도시 교회 마당에서 열게 하고 있는 것. 도시 교회는 서울의 수서교회(황명환목사 시무)가 활동이 활발하다. 직거래 장터는 '무조건 도와달라'는 식이 아니다. 도시와 농어촌 교회가 상생하고 공존하는 현장이다. 농어촌 교회는 교인과 농어민의 소득을 올려주며 자립의 길을 도모하고, 도시 교회 교인들은 유기농이며 친환경적인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는 상생의 장이 되고 있다. 직거래에 참여하는 목회자와 교인들은 된장, 김치, 쌀, 무화과, 미역, 다시마, 고구마 등 직접 하나님의 창조섭리 안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 자부심이 강하다. 직거래에 계속 나오고 있는 임봉기목사(월평교회)는 "직거래 장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듯 좋은 먹거리가 육신을 살리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소는 농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에 캠프를 열어주고, 신학생 가운데 농어촌에서 단독으로 사역하는 이들에게 매학기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선교에 관심을 두고 매뉴얼과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소장 강성열교수는 "도시 교회들과 목회자들, 평신도들이 농어촌 교회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조금 더 깊은 애정을 가졌으면 한다"며 "농어촌과 농어촌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연구소가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성장동력, '개혁', '목회철학'. '오순절 영성'

한국실천신학회 제41회 정기학술대회가 '한국교회 성장동력'을 주제로 지난 9월 24일 세종대학교 애지헌교회에서 열렸다.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3개교회를 선정해 이 교회들의 성장 동력을 연구해서 발표한 이번 학술대회는 특히 침체일로에 있는 한국교회의 성장 가능성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

이날 연구결과가 발표된 교회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본교단 소속 거룩한빛광성교회(정성진목사 시무)가 '한국교회 개혁모델'로 연구된 것을 비롯해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오산평화교회(최석원목사 시무), 서울 관악구 청림동에 위치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지구촌순복음교회(강동인목사 시무) 등이다.

조성돈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가 발표한 거룩한빛광성교회의 성장동력은 '개혁모델'이라고 평가됐다. 거룩한빛광성교회는 "3대 목표 △섬기는 교회 △인제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5대 비전 △지역사회 문화중심 △고양파주 성시본부 △한국교회 개혁모델 △북한선교 전초기지 △세계선교 중심센터 등을 계속 다지고 있는 것이 성장 동력의 특징"으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특징을 담임목사의 헌신성과 리더십 그리고 설교, 평신도 참여와 다양한 사역.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 조 교수는 "거룩한빛광성교회를 통해서 바라보는 한국교회에 개혁하는 교회, 개혁적인 교회가 사람들에게 성장하는 트랜드로 자리했으면 한다"고 말한 후 "교회가 사람들 가까이서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외면당하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 교수는 거룩한빛광성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을 섬기고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로서 바르게 설 때 한국교회는 다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오산평화교회의 성장동력을 연구하는 하도균교수(서울신대)는 교회론에 근거한 담임목사의 소신있는 목회철학의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동력이 되었음을 소개하면서 교회가 진행해 온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의 필요(need)를 조사하고 이 필요를 채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한 것이 적중했음을 설명했다. 하 교수는 오산평화교회의 성장 동력을 개교회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회의 비전과 그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것 △비전을 공유한 동역자들을 모으기 위한 시간을 가질 것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충실할 것 △지역의 필요를 발견하여 지역을 열어갈 것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론을 바꿀 것 등을 제안했다.

오순절 영성교회로 성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 지구촌순복음교회에 대해 연구한 김상백교수(순복음대학원대학교)는 담임목사의 영성과 설교, 역동적인 예배, 성령충만 치유금식 성회, 성령 에클레시아 등 오순절 영성목회와 통합의 리더십, 헌신적 전도와 선교의 실천, 사회를 섬기는 교회 등을 성장동력으로 소개했다.

실천신학회의 정기학술대회는 오는 21~22일 열리는 기독교공동학회에서의 열리는 42회 학술대회와 내년 2월 3~4일 열리는 학술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총회·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공보

북촌우물가
2011년 10월호 · 통권 제 217 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 황 영 태
편집인 : 안 종 혁
안 재 훈
발행일 : 2011년 10 월 7일
(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